

# 진드기 매개 감염병



김윤정 감염내과 교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일부 진드기가 풀숲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Thrombocytopenia Syndrome), 라임병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해 소개하고자한다. 쯔쯔가무시증은 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해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렸을 때,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전신적 혈관염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10월~11월에 호발하며 전남, 경남, 전북, 충남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1951년 주한 UN군에서 환자 발생보고가 있었고 1986년에 쯔쯔가무시증의 존재가 혈청학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쯔쯔가무시증은 1994년 감시를 시작, 1998년 이후 수년간의 주기로 계단식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 11,105명 발생 이후 에는2018년 6,668명 2019년 4,005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잠복기는 6-18일이며 초기 증상으로 발열, 오한, 두통이 있으며 발진과 가피(eschar)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치료는 독시사이클린, 아지스로마이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사망률은 0.1~0.2%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열성 바이러스성 질환을 말하며 매개체는 작은소피참진드기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5월 첫 사례를 확인한 이후 2018년 259명, 2019년 22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주요 발생 시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제주, 경북, 강원도 등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 노출에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잠복기는 대개 0-16일로 증상으로는 발열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근육통, 구역, 설사가 보일 수 있다. 혈소판 감소 및 백혈구 감소가 특징적인 초기 임상 소견이며 동반된 응고장애 등으로 인한 출혈성 경향이 1/5의 환자에서 확인된다.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으며 보존적 치료가 주된 치료로 1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 혈액이나 체액 직접 접촉(손상된 피부 혹은 점막)과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환경과 간접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표준주의지침과 비말 및 접촉주의 지침 준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중 모 병원 의료진 5명이 감염된 예가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가 서식하는 풀밭이 있는 숲이나 잡목 지역을 가급적 피하고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몸에 진드기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야외 활동 시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